

## 뉴스속뉴스

### 강원도에 전해진 온정

참고 배고픈 것 만만 서러움도 없다. 거기에 엄격한 규율에 몸과 마음조차 자유롭게 못하다면 서러움은 더 쌓이게 마련이다. 남자들은 군대에 있을 때 이런 기분을 느낀다. 그러다보니 누군가 그리워지고 정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진다.

군복자들도 예외일 수는 없다. 특히 강원도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불자장병들은 스님들의 법문은커녕 외부의 위문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전역하는 경우가 많다. 올해는 조계종 포교원이 정한 '군포교 진흥의 해'였지만 강원도지역 군복자들에게는 남의 얘기였다.

그런데 최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강원도지역의 군법당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다는 문의 전화가 연이어 걸려 온 것이다. 본지 396호 5면 '시방세계'에 실린 '강원도 군복자들, 여건 허락해도 불심만은 돈독' 기사를 보고 강원도 군법당의 어려운 사정을 알게 된 독자들이 관심과 지원을 표명해 온 것이다.

경기도 연천의 한 군법당을 지원하고 있는 포교사는 가까운 철원지역의 군법당도 한 곳 지원하고 싶다는 가까운 부대를 물었다. 기사를 보고 불교계의 현실에 참담함을 느꼈다는 한 불자는 허터를 기증하고 싶다고 했다. 또 어떤 비구니 스님은 피아노를 강원도 군법당에 기증하고 싶다고 했다. 불교미술전에서 후발행을 출품해 입선한 김미숙씨는 자신의 작품을 군법당에 전시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왔다.

최박한 여건의 강원도 군법당에 보내 주는 관심과 지원은 강원도 군복자들의 불심이 더욱 활짝 타오르도록 불씨를 지핀 것으로 생각된다.

그들을 한국불교 미래를 짊어질 역군으로 키우는 일은 모든 불자들의 몫이다. 박병영 (취재1부 기자)

## 새벽 예불과 차...즐거운 일요일

### 선다원, 어린이 다도·참선공부 4년째

경남 의령군 부림면 단원리 열 가구 남짓한 마을의 일요일 새벽은 선다원(禪茶園)으로 향하는 아이들의 분주한 발걸음으로 깨어난다.

비까지 내려 캄캄하고 습기만 한데, 선다원 법당 앞에는 아이들의 작은 신발들이 가지런히 비를 피하고 있다. 해맑은, 해맑은, 쌍둥이인 하나, 두나, 그리고 선하이, 진주에서 주말마다 찾아오는 지문, 성문이 등 단원리 마을의 아이들 모두가 생활한복을 곱게 입고 새벽예불에 참석하는 것이다.

단원리의 일요일 새벽 풍경은 4년 전 선다원이 마을에 터를 잡으면서부터 언제나 한결같다. 비가 내리던 8일에도 '새벽장을 설치'하며 할머니의 손을 잡고 선다원을 찾은 아이들은 줄줄이 줄으며 법원스님의 현대식으로 시작된 예불 내내 합장한 고사리 손을 흔들리지 않았다.

예불이 끝나고 다실에서 두나 부림초 6가 차를 준비하는 동안 다른 아이들은 익숙한 반가 부와 자제로 참선을 했다. 세 살 때부터 이미 다도를 해온 여섯 살 성문도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눈을 감은 채 줄줄이 참

다실을 직접 설계한 선다원 주지 법원스님은 "깨달음의 세계나 차의 세계는 지위고하, 명예, 아만심 등 일체의 것을 내려놓은 후야야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상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이들은 스스로

### '재잘재잘' 차담...어느새 차향에 흠뻑

### '발표력 좋아지고 남 위하는 마음 생겨'

고 있다. 30~40분쯤 흘렀을까? 팽팡! 차 준비가 끝났다는 종이 울렸다. 참선을 끝낸 아이들은 다실 입구에서 흐르는 물로 손과 입을 헹구고 다실로 향했다. 그런데 다실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고역이다. 몸을 굽혀야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좁은 통로를 지나야 다실에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를 낮춰 들어선 다실에서 차담(茶談)을 나누며 추운 몸을 녹인다. 한 잔의 차를 나누는 시간, 입안에 고이는 차향은 동심롭다. 선다원(茶禪一味)의 세계로 안내하기에 충분하다.

매주 토요일 저녁에는 어른들이, 일요일 새벽예불 후에는 마을 아이들이 모여 차를 마시며 참선 수행을 하고 있는 선다원



○새벽예불을 마친 선다원 아이들이 다실에 모여 다도를 익히며 차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임민수 기자

의 다도 수행은 마을 아이들을 변화시켰다. 4년 전부터 매주 부산과 의령을 오가며 아이들 다도를 지도해온 박보현행(44) 보살은 "아이들이 너무 밝아지고 예뻐졌다"고 자랑부터 시작했다. 학교 선생님이 달라진 아이들 모습에 놀라 선다원을 찾아오기도 했을 정도다. 발표력이 좋아지고 상대에 대한 배

려가 늘어 좀더 싸우는 일이 없다. 부모가 없어 얼굴이 그늘 것만 몇몇 아이들도 환한 웃음을 되찾았다. 이제 선다원에서 보내는 일요일은 아이들이 일주일 내내 기다리는 즐거움이자 마음을 온통 빼앗아 버린 놀이이고 몸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수행이기도 하다. 다도 선생님이 되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는 해림(신남중 2년)이는 "참고 잠이 오지만 벌떡 몸을 일으켜 절에 오면 동네 아이들과 따뜻한 차를 마시며 얘기도 하고 참선도 할 수 있어 너무 좋다"며 "아이들 모두 예불과 참선을 하고 차도 마시면 성격도 오르고 마음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mheehi@buddhapia.com

### 단양 구인사에 천태유물 전시관

내년 2월 착공, 2004년 완공

천태종이 국내 최대의 불교유물전시관을 충북 단양 구인사에 세운다.

천태종(총무원장 운백)은 9월 불교유물전시관 건립 예정지인 충북 단양군 백자리 부지에서 현장설명회를 갖고, 내년 2월부터 건립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274억원이 투입될 '천태유물전시관 건립 기본설계 보고서'에 따르면, 천태종은 유물전시관 건립을 4년 중기사업으로

정하고, 1차로 내년 2월 공사에 착공해 2004년까지 연면적 6,270평방미터 규모의 유물전시관 및 관리동을 완공할 계획이다.

천태종은 2006년까지 한국불교역사관 1동, 세계불교역사관 2동, 야외전시장 등을 건립해 1500년 천태사상을 집대성하는 학술연구센터이자, 국제불교문화원과 교류활성화의 거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김철우 기자

### 동국학원 새 이사장 23일 선출

정대스님 가장 유력...일부계파 반발 움직임

동국학원 새 이사장이 23일 선출될 전망이다. 동국학원은 23일 오전 11시 동국대 교무회의실에서 제 188회 이사회를 개최한다.

이사회에서는 임원 중 권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 이를 보충해야 한다'는 정관 24조 5항에 의거 20일부로 사임하는 이사장 녹원스님의 결원에 따라 신임 이사장을 선출하게 된다.

이사회를 앞두고 '동국학원 신임 이사장에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현재 상황으로는 정대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이 가장 유력하다.

정대스님의 경우 동국학원 이사장 취임에 강한 뜻을 피력한 반면, 다른 이사들은 이사장에 나서겠다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대스님은 9월 7

자간담회에서 "이달말 동국학원 이사장을 선출하는 이사회가 열리고 한 달 후 교육부의 인가가 나면, 그때 총무원장을 그만둘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총회의 복수추천을 받지 않고 진행되는 정대스님의 새 이사 선임과 관련 총회의 한 계파에서 강하게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동국학원 정관 제 24조 3항의 '다만 법정기일내 후보를 추천하지 못할 경우 이사회에서 선임한다'는 규정에 따르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김원우 기자

### 대장경 전체 목록 언어·판본별 정리

지금까지 간행된 모든 대장경의 목록을 언어별, 판본별로 정리하는 작업이 학술진흥재단 지원으로 추진된다.

고려대장경연구소는 10일 '불교 언어·판본별 대장경 목록 정리 및 해제 작성' 사업이 한국학술진흥재단의 2002년 기초학문 육성 인문사회분야 2차 지원사업(국학고전연구 분야에 선정됐다)며 '대장경 목록 정리는 2년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소 측은 "한문 대장경뿐만 아니라 산스크리트어, 팔리어, 티베트어 등 각 언어별로 간행된 모든 대장경 목록을 정리해 통합대장경 목록을 작성하고 판본별로 비교하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 관음보살도 무료로 드립니다

#### 자동이체...12월 31일까지 접수하세요

현대불교신문사는 독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구독료 자동이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이체를 하시면 지료우편을 들고 일일이 은행이나 우체국으로 가지 않아도 편리하게 현대불교를 보실 수 있습니다.

새로 구독자가 되시면서 구독료를 자동이체 방식으로 신청하시는 분이 나 기존 구독자가 새 구독료(월 5000원)로 자동이체 하시는 분에게는 사은의 뜻으로 미려한 색감의 16도 정밀 인쇄된 관세음보살도(의상식 17, 27cm×37cm, 시중판매가 2만원 상당)를 드립니다. 이 보살도는 그대로 벽에 거시거나 액자에 넣고 보시면 수준 높은 예술품이 됩니다.

- ▶ 자동이체 신청방법
  1. 독자번호(성명, 주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주민등록번호, 이체 희망 일자를 전화로 알려 주시길만 하면 됩니다)
  2. 자동이체 신청가능 은행: 모든 은행 및 수협 우체국(11월부터 시행)
  3. 이체 희망일: 매월 5, 15, 25일 중 택일

▶ 자동이체 문의·신청 전화 (02)737-0090(작동) (02)737-8881(대표)

현대불교신문사

###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후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 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 ◎ 구독접수안내
 

수도권: 02-737-1090 부산 경남: 051-632-0054 대구 경북: 053-768-8008 광주 전남: 062-375-9986 전주 전북: 063-255-2274 대전: 042-489-9390 충청: 043-258-1282 인천: 032-937-5679 강원: 033-643-5599 제주: 064-634-3429 일양: 036-353-1196

## “자비의 등 지혜의 등”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 연꽃잎 제조특허 (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 (등록 제098634호)의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

“연등용 전선 케이블” 찬덕 연등이 시공하면 기초부터 다릅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지금 전국에선 “연등전선케이블”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시공하여 드립니다.



\*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



\* 연등에 사찰이름을 인쇄할 경우 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찬덕 연등제작사 전화: 031) 792-6288, 794-4055 / FAX 031) 794-6288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찬덕 홈페이지: www.chanduk.com e-mail: chanduk21@hanmail.net